



개혁신학산책 | **황 대 우** | 진주북부교회 부목사, 부산외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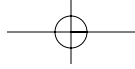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 루터,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이 글은 지난 7호에 이어 연재되는 번역글입니다. 아래의 번호는 7호에서 “III. 츠빙글리 신학의 주요 국면들”의 하부 내용에 해당됩니다. 7호에는 하부 내용 번호 10이 없는데, 원문에 이 번호 1은 “요소들과 동인들”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들은 그 다음 내용을 가리킵니다.

## 2. 종교개혁의 결단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결단은 이상숭배로부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 동일한 이상숭배란 종교생활에서 인간의 권력과 교리와 전통들과 결부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성례주의(sacramentalism)와 공로주의(justification by works)로 나타나며, 또한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탐욕과 전쟁과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는 영적인 성격이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에 호소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최고로 참되고 유일하게 참된 위로시며 소유시라는 사실이다. 최고선(sum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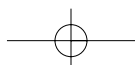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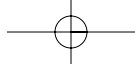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bonum), 그것은 영적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은혜를 제공하는 것과 제공된 은혜는 일치한다.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단순히 종교개혁 운동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해될 때 그것은 당연히 공공생활을 포함하는 삶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밖에 있는 인생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중세의 기독교 사회(corpus christianum)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결정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들을 넘어섰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혼의 위로”를 이해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부패를 극복하기란 영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편에서의 구원 활동도 획득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3. 복음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우리 자신과 피조물을 의지하는 죄 많은 우리 세상에 영적인 침투를 감행하셨다.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이다. 이는 우주와 각 개인에게 운명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회개를 이루며 주관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안셀무스적인 만족 교리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될 때 그것은 종종 “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말씀의 참된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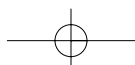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의 보증과 증거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불린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가난한 인류는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만하여(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조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 죄 아래 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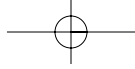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태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즉 시편 50편(51:7)<sup>1)</sup>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거나,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조차도 사랑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이나 강압적인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섬김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결코 옳은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순수하시며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고, 진짜 선하시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 등과 같은 것이 전혀 없으시므로 그의 길에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악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들 더럽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과 나쁜 행위를 열심히 부인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심한 위선자와 악인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외아들이 아닌 다른 은혜의 보증을 주셨더라면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큼 큰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7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1) 크빙글리가 50편으로 언급한 것은 라틴어 번역서인 불가타 성경을 따른 것인데, 오늘 우리 성경의 51장에 해당한다. 저자인 로허(Locher)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로서 51장 7절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51장 5절이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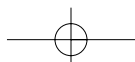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자신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죄에 대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사신 후, 악마의 지체들과 자녀들에 의해 폭력적인 죽음에 넘겨지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은 살해당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영원히 만족되었고 죄 값이 지불되었으며 화해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창조된 것과 같이 그들 모두는 그분을 통해 구원 받는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분 외에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회복 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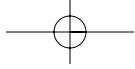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요컨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총체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다.

안셀무스적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츠빙글리는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그의 자비도 역시 만족을 위한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처벌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는 용서는 기껏해야 임의적인 친절 행위 정도이지 확신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아닐 것이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또 다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천사도 사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인류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재결합시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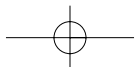
#### 4.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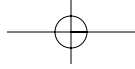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으며,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신다. 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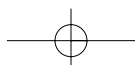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빙글리는 군사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군병”이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용병들이다. 중세 후반에는 대장과 그 군대 사이의 관계가 견고했다. 전시에는 장군이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고 그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의 통치하에 두는 증거가 될 것이다. 츠빙글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는지는 늘 주목되어 왔고, 이런 점에서 르네상스 철학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신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의 결과와 증거가 된다. 이것은 그가 추가적인 성경의 증거를 인용하든 안 하든 자기 논지의 근거로써 대개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혹은 로마서 8장 32절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나 세네카처럼 어떤 경건한 이교도들도 단일신론(monotheism)을 지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조명으로 섭리라는 개념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호소하는 것을 츠빙글리는 좋아한다. 하지만 고전 철학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중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전 철학자들과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유의지라는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와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신앙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것은 이론적인 수정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자부심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행위의 공로를 매섭게 끊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어떤 확신 이외의 다른 무엇이 결코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 것도 기여하는 것이 없고,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시 되고 명령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온다. 또한 그것은 만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록 우리가 파악할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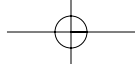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깨달음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사를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듯이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연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이 행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당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게으른,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라고 부르는 당신의 행위는 당신의 저주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겸손과 행동하려는 의지는 믿음에 대한 츠빙글리의 개념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둘 다 신뢰로부터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할 것이라는 점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 다른 종교개혁가는 없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거부하실 것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도록, 또한 우리에게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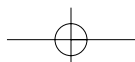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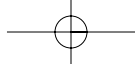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절하실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부하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의 아들보다 못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들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 뒤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sumum bonum)이다. 스콜라주의도 이런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이런 묘사를 도입한 것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위해서 아주 멀리 뻗어 나가는 결과들을 초래했고 또한 문화의 역사 전반을 위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츠빙글리에 관한 한 일부 중요한 사실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우리 생각에는 거의 추상적인 개념, 혹은 심지어 범신론에 가까운 이런 표현의 중성적인 특징이 16세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완전히 성경적인 유신론으로 묶여 있었다. 그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화해하시며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둘째, 츠빙글리가 “최고 선”을 말할 때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도 역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스콜라주의를 뛰어 넘는다. 즉 그에게 최고선이란 단순히 우리가 다른 방법에 의해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뛰어 넘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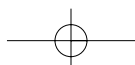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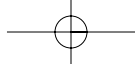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게 무엇이 실제로 “선”인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만이 성품상 본질적으로 선하시다. 창조의 영역에서 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참여를 통하여, 혹은 오히려 내어줌에 의해”(participatione, aut potius precario) 이러한 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함에 대비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그의 저술 〈섭리에 관하여〉(De Providentia)의 초두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츠빙글리의 변증은 스콜라적 개념들을 꽤 급진적으로 변경하는데,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자연 신학”(natural theology)의 노선을 따르는 해석을 배제하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인격적 수여자시요, 모든 선의 과정이시며 “모든 선의 샘”(the fons omnis bonitatis)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일한 사고방식은 존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미 알려질 수 있는데, 스콜라적 논리에서는 당연히 “선”보다 존재 개념이 우선하지만 츠빙글리의 사고에서는 두 개념이 전형적인 방법으로 섞여 있다. 창조주의 첫 선한 선물인 존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선하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즉 그분은 하나이신 참된 존재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자존성의 개념은 츠빙글리의 신(God)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이다.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것은 츠빙글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둘 다를 포괄하는 본질(essentia), 즉 모든 것을 내포하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에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 둘의 차이에서 파악하고 그 둘의 차이를 그 둘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이것은 옛 길(via antiqua)이 츠빙글리에게 발휘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츠빙글리가 모든 말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창조주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이요, 또한 창조주께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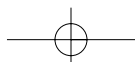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주되심과 결합되고, 이것을 위한 기초로써 봉사해야 한다. 반면에 최고선과 순수 존재로서의 신 개념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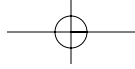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부라는 성경적 개념으로 흐른다. 이런 점에서 출발하여 섭리(providentia, prudentia)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행동으로 묘사된다. 왜냐하면 섭리(providentia)는 통제(moderatio), 통치(gubernatio), 질서(ordinatio), 예정(praedestinatio)등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섭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꾸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지혜, 자족, 전지, 전능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이런 섭리 개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서 토마스주의의 영향을 나타내는 어떤 결정론이 발견된다. 하나님의 단순성(simplicitas)에 대한 츠빙글리의 강조는 아마도 “숨겨진 하나님”(Deus absconditus)과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 사이에 대한 루터의 오컴주의적 구분과 반대 방향인 것 같다. 하나님은 항상 불가분리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전체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또한 츠빙글리가 하나님의 의(iustitia)와 하나님의 자비(misericordia) 사이를 구분할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것이 루터주의의 안티테제(antithesis)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의와 자비는 둘 다 그들 자신의 존재와 진리를 오직 그들의 상호관계에서만,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통일성에서만 발견한다. 둘 다 하나님의 선(bonitas)에서 나오며 선에 종속된다. 그래서 은혜가 최상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모든 다른 사역을 능가하기”(misericordiae eius omnia opera eius superant) 때문이라고 츠빙글리는 말하면서 시편 145편 9절을 인용한다. 이렇게 해서 츠빙글리의 신론에서 고전 스토아주의(stoicism)나 중세 스콜라주의의 거의 모든 정적인 개념들은 성경적, 역사적 사고방식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Deus noster)이시라는 사실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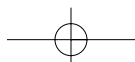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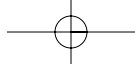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 6. 삼위일체

최근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교리가 이 구원론적인 문맥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츠빙글리가 전통적인 교리를 아무런 발전적 사고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활기찬 재해석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츠빙글리의 관점에서 세 인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에서 그분의 신성을 유지하고 묘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삼위일체의 통일성 개념을 교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서구의 어거스틴적 전통에 보다 분명하게 서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와 성육신을 강조함으로써 신격의 삼위 사이의 차이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루터와는 다른 점이다. 비록 츠빙글리가 그 교리를 매우 짧게 다루고 있지만 공적인 신조들에 대한 그 자신의 특별한 강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Fidei Ratio)의 서문은 의식적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반영한다. 하지만 그는 이 신조를 독특한 방법으로 변경한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안다. 그분은 본성상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의 단일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설명에 일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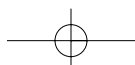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 7. 기독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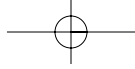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삼위일체 교리에서 츠빙글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론과의 연관성이다. 그는 초대 교회의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심”(vere deus, vere homo)이라는 신조를 고수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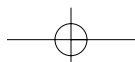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와 구원론의 용어로만 묘사될 수 있다. “육신을 취하심으로”(per assumptionem carnis)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이 인간 본성을 “위격적 혹은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자신의 신성과 연합시키신 분은, 아버지도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며 오직 영원한 아들뿐이다. 이 점에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일치한다. 하지만 츠빙글리가 강조하는 것은 “취하심”(assumptio)에서 신성이 능동적인 반면에 피조물로서 인성은 수동적이라는 점과, 신성이 인성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흡수 동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사실상 한 주체라는 점에서 동일한 장소를 차지한다. 종교개혁 논쟁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루터가 인성을 강조한 반면에 츠빙글리는 신성을 앞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루터와 츠빙글리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했으나, 루터의 강조점이 “계시”에 있었던 반면에 츠빙글리의 강조점은 “하나님”에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비텐베르크와 취리히 종교개혁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 안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의 문제뿐이었지만 결국 여러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성례, 성찬, 세례와 신앙고백에 관한 논쟁, 말씀과 성령에 관한 논쟁, 교회에 관한 논쟁, 정부 즉 “권력”과 저항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논쟁 등 모든 논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감히 심사숙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비텐베르크가 취리히 사람들을, 비록 취리히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신도들이나 천년설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같은 종교개혁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렬한 설교자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 때에 인정하기만 했더라면 말이다. 또한 그들이 보다 초기에 겪은 불행한 사건들 후에 나타난 현상보다 실제로는 서로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제 때에 깨닫기만 했어도 말이다. 논쟁이 잘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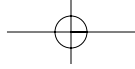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된 시점에서 일어날 때보다 더 맹렬하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다. 처음부터 기독교론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더라면 아마도 서로에 대한 접근이 문제없이 전개 되었을 것이고 성만찬에 관한 논쟁에도 그렇게 치명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츠빙글리의 기독교론은 이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두 본성의 관계에 대해 네스토리우스적인(Nestorian) 색채를 띤다. 두 본성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인데, 논쟁적으로 말하자면 “분리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본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은 그분의 신성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의미하는 바는 츠빙글리의 기독교론이 삼위일체 교리와 쉽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 교리에 큰 힘이 된다. 츠빙글리가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 관한 복음서 전통의 세부사항들을 다른 어느 종교개혁가보다 더 철저히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도 역시 그분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성을 취해야만 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본성이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인성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츠빙글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항상 처녀”(semper virgo)라는 마리아론적 교리를 고수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구원하는 능력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신성의 기관이라는 사실에 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는 분명한 예속주의(subordinationism)가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인성으로만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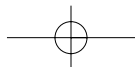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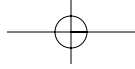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난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오직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pro nobis)는 확실히 주님의 인성에 맞을 내리지만 “우리를 위하여”(pro nobis)는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종교개혁가들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신성과 인성의 특성이 서로 교류된다는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에 대한 논쟁이 심화 되었는데, 이는 특히 루터주의자들이 “편재”의 가능성, 즉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 가능성을 주장함으로 야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후에는 이로 인해 유한하게 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셨다는 등의 결론과 동시에 인간 예수는 무한하게 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내려야 하는가? 더 고집스러운 루터주의자들은 이것을 주장했지만 필립주의자들<sup>2)</sup>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자들 역시 이것을 부인했다. 츠빙글리는 “두 본성간의 연합”(communio naturarum)만 인정한다. 신인이신 ‘인격체’(person)와 관련해서만이 “교환을 통하여”(per alioisim) 두 본성의 속성들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다”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가능하다.

개혁주의에서는 이러한 위치를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위해 고수한다. 따라서 논쟁의 노선들은 서로 교차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원리의 문제로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형제라면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며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조차도 여전히 유한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유한한 것은 항상 무한한 신성과 결합되지만 신성은 인성을 능가한다. 이것이 소위 훗날 “칼빈주의적인 것을 넘어서”(Extra Calvinisticum)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츠빙글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공식화했고 우연하게도 아

2) 필립 멜랑흐톤의 추종자들: 역주





우구스티누스와 고대 스콜라주의와 일치한다. 반면에 16세기 로마의 논객은 루터처럼 신단성론적(neomonophysite)<sup>3)</sup> 기독교론 노선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은 그 공통의 뿌리를 중세 후기의 신비주의와 유명론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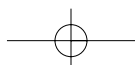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츠빙글리에게서 간략한 2개의 인용문을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은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의 견해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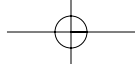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1) “그분의 인성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양이다.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성에 따라 고난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성에 따라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양성론적(dyophysite) 공식과 구원론적 의도, 둘 다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다.

2) 츠빙글리는 요한 에크(Johannes Eck)를 신랄하게 공격하는데, 즉 에크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어둡게 하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모욕하고 실추시키며 그리스도의 다른 두 성품, 즉 모든 것을 꿰뚫고 향존하시는 신성과 하나님의 인도와 결정에 따라 오직 ‘한’ 장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성을 혼합시킨다...”라고 말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어떻게 이 관점들이 오버랩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개혁주의 입장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강조한다. 두 본성의 혼합은 “참으로 인간이신”(vere homo)의 개념을 침해하고, 더불어 성육신의 기적도 침해하며, 또한 주의 참된 역사성과 마찬가지로 성육신에 나타난 은혜도 역시 침해하고 그의 고난의 깊이 까지도 침해한다.

따라서 이 기독교론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단성론과 가현설로 기우는

3) 단성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하나로 결합하여 한 본성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





모든 경향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높임 받으시고 선포되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역사적인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가장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는 영생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 받으신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나누게 되리라는 약속과 관련이 있다. 루터의 분노를 일으킨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츠빙글리도 역시 사도행전의 “하나님 우편”이라는 문구가 “장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어법인데,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컨대 루터의 기독교론은 성탄절에 속하는 반면, 츠빙글리의 기독교론은 부활절 혹은 승천절에 속한다. 그 신정적인 힘은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 속에 잠재되어 있다.

